

Submission No.: EE01-9140

Session Title: Ethics Education

Date & Time, Place: April 29 (Sat), 15:30 - 17:30, Auditorium

노인 말기신부전 환자의 치료결정

In O Sun

Presbyterian Medical Center, Korea, Republic of

서구에서 신대체요법을 시작하는 평균 나이가 약 64-73 세로 알려져 있고, 우리나라에서도 65 세 이상 고령 투석 환자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20 년 기준으로 63.7% 였다. 고령 투석환자의 사망률은 매우 높아 투석 시작 1 년 후 생존률이 서구 및 우리나라의 경우 60-70%이며, 75 세 이상의 환자에서 투석을 시작하는 경우는 10% 이상의 환자에서 3 개월 미만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기대 여명이 낮고 전신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있어 완화적 돌봄(palliative care)도 고려할 수 있기에, 투석을 시작하는 노인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수개월 내의 생존율을 예측하는 것은 의료진이나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.

노인 말기신부전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임상 지표로는 노쇠, 낙상, 깜짝 질문, 인지 기능 장애등이 있는데, 최근에는 임상 지표를 정량화하여 투석 후 생존율을 예측하는 방법이 소개되었다. Couchoud 연구팀은 75 세 이상 환자가 투석을 시작하는 경우에 6 개월 뒤 사망률은 19% 정도로 보고 하면서, 체질량지수, 당뇨, 울혈성 심부전 정도, 말초 혈관질환, 부정맥, 활동성 암(active malignancy), 심각한 행동장애, 기동성(mobility), 예기치 않은 투석 (unexplained dialysis) 등의 변수를 점수화하여 6 개월 뒤의 생존율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. 또한, 이 연구팀에서는 수년 뒤에 투석을 시작하는 75 세 이상의 만성콩팥병 환자의 3 개월 뒤의 생존율을 예측하는 REIN score 모델을 개발했다. 이 모델에서는 연령, 성별, 심부전 기왕력, 말초 혈관 질환, 부정맥, 활동성 암, 행동장애, 활동성(mobility), 알부민 수치 등의 9 개 변수를 점수화하여 3 개월 후의 생존율 예측이 가능하다. 예후 평가는 환자와 의료진이 고령의 말기신부전 환자의 향후 치료 방향을 공유의사결정을 통해 결정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. 하지만, 국내에는 고령 말기신부전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방법이나 모델이 없는 상황이라,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. 최근 대한신장학회 산하 노인신장학연구회에서 이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가 기대된다.

여러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투석 환자의 경우에는, 투석 치료 후에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, 위약감 및 인지 장애와 같은 노인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투석으로 호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따라서, 투석을 시작하기 전에, 예후를 예측하고 이를 환자 및 보호자와 충분히 공유하여, 투석 치료 혹은 보존적 치료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. 그리고, 투석을 시작하는 경우에, 점진적 혈액투석(incremental hemodialysis) 과 같은 개별화된 투석 치료(personalized hemodialysis) 등도, 향후에 고령 투석 환자에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.